

믿음이 있으면 날 수 있다

| 조셉 마셜 3세 | 공민희 옮김 |

저자는 우화를 통해 하늘을 나는 것과 날지 못하는 것 사이의 어떤 선, 즉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경계지어진 것들 사이를 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편집자 주).



시실 의에 빠진 이크토미는 초원과 언덕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걷다가 지쳐서 멈쳤다. 오는 길에 덤불에서 마지막 남은 열매를 몇 개 따 먹긴 했지만 너무 작고 써서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딱히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는 바람이 미치지 않는 강둑 뒤편에 쉴 곳을 찾았다.

태양은 얇게 드리운 구름에 가려져 모든 것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이크토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 발로 걷는 자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가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었다. 그들은 한때 이크토미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대부분이 그를 비웃었다. 그는 인간들이 자신을 교활한 사기꾼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집과 음식을 위해서라면 그쯤은 참을 수 있었다. 누가 그를 바보 같다고 그랬던가? 그는 굶거나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 소리가 달라졌다. 이크토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둉글게 말았다. 그는 자신을 지나쳐 근처 풀숲에 내려앉는 회색 형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머리와 목이 검고 목젖은 흰 커다란 거위였다. 회색 물체가 큰 독수리 같은 하늘의 사냥꾼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며 이크토미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거위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이크토미를 발견했다.

“나는 여행자라고 해.”

거위가 청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우리 종족의 정찰병이야.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주자들이거든.”

이크토미는 일렬로 하늘을 메우고 긴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는 거위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가을이면 남쪽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다

시 북쪽으로 돌아왔다.

“너는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크토미가 궁금해서 질문했다.

“밤을 보낼 곳과 식량을 찾고 있어. 우리는 갈 길이 멀거든.”

“너희들은 겨울에 어디로 가는 거야?”

“아주 먼 남쪽으로.”

거위가 대답했다.

“우리는 ‘위대한 강’을 따라 내려가서 겨울을 보내. 그곳은 무척 따뜻하지. 계다가 먹을 것도 아주 많아.”

“세상에…….”

이크토미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도 날 수 있으면 그곳에 갈 수 있겠지.”

커다란 회색 거위는 강둑에 옹크리고 앉아 있는 처량한 존재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너는 여기 살아?”

거위가 물었다.

“응.”

이크토미가 대답했다.

“이곳이 내 집이야.”

“대초원에 사는 동물들은 겨울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어. 너도 준비가 끝났겠구나.”

“준비와는 상관없어.”

이크토미가 진실을 회피하며 말했다.

“따뜻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좋겠어.”

“그럼 우리와 함께 가자.”

여행자가 제안했다.

“너는 참 친절하구나. 하지만 나는 날지 못해.”

이크토미가 한숨을 쉬었다.

“날아보려고 한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지금이 바로 그 생각을 해볼 때인지도 몰라.”

“너는 나를 비웃고 있어.”

이크토미가 발끈하며 말했다.

“나는 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조물주는 네게 날개를 줬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나는 법을 가르쳐주셨어. 날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의지야.”

이크토미가 반박했다.

“새가 날려는 용기를 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시도해본다고 네가 앓을 건 뭐야?”

여행자가 묻자 이크토미는 움찔했다.

‘아마 이 새는 마법을 부리나봐. 아니면 나를 놀려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거나.’

이크토미는 의구심을 보이며 말했다.

“내게 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대화에 흥미가 떨어진 거위는 주위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알다시피 비행은 바보나 심약한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곧 도착할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야 해.”

거위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어. 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크토미가 소리를 질렀다. 거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흘끗 뒤통수를 아봤다.

“내일 새벽에 이곳으로 올게. 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여기 와 있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이크토미는 자신의 부지런함에 놀랐다. 그는 맨손으로 강둑을 뒤져 몸에 꼭 맞는 바람을 막아줄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풀과 덤불, 나뭇가지를 주워다 작게 불을 피울 준비도 했다. 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차가운 밤공기는 피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남은 불꽃이 잣아들고 동이 틔웠다. 거위는 회색 하늘에서 내려와 강둑 근처에 착지했다. 이크토미는 굳게 마음을 먹고 굴에서 나와 그에게 다가갔다.

“출발이 좋은걸?”

거위가 말했다.

“내 예상과 달리 이곳에 나왔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크토미는 자신의 이성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나는 따뜻한 남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나는 법을 배우고 싶어.”

“어제 잠은 잘 잤을 거라 믿어. 해가 지기 전까지 날지 못하면 너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해.”

여행자는 떨고 있는 이크토미를 데리고 내리막길이 펼쳐진 언덕 위로 올라갔다. 덤불 근처에는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얇은 막대에 거위 날개털을 빼곡히 붙여놓은 것이었다.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내가 양쪽 날개에서 깃털을 몇 개씩 뽑았어.”

여행자는 깃털로 덮인 막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네 팔에 달 거야.”

이크토미는 언덕 위에서 날개 달린 막대기를 양팔에 매달고 서 있으니 어쩐지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물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해야 해.”

거위가 설명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언덕 아래로 달려. 그때 팔을 위아래로 퍼덕여야 해. 달리는 속도나 팔을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하늘로 몸을 띠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야.”

“몸을 띠운다고?”

“그래, 그게 우리가 나는 방법이야. 다른 모든 새들도 마찬가지고.”

이크토미의 눈으로 의심의 물결이 밀려들었다. 거위 역시 그 점을 눈치챘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이크토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

“믿음이 이 깃털을 달고 비행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절대적으로 상관있어.”

거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비행에 있어서 믿음은 깃털만큼이나 중요해. 우리는 네게 깃털을 줄 수 있지만 믿음까지 심어줄 수는 없어. 그건 네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야.”

“어디서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여행자는 나이가 지긋한 혼명한 거위였고 참을성이 있었다.

“너는 무엇을 믿지? 정의, 선함, 친절을 믿어? 아니면 오직 자신의 안녕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저 날아서 너와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싶을 뿐이야.”

이크토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네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이 너 자신을 믿게 해줄 테니까. 너는 네가 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그러면 너는 날게 될 거야.”

이크토미는 두 팔에 매달린 깃털 막대를 내려다본 다음 언덕 아래로 길게 펼쳐진 경사를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노력도 필요하겠는걸?”

이크토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내 말대로 언덕 아래로 뛰어가며 날개를 펴여. 날 수 있다고 믿고 하늘로 몸을 띄워봐.”

이크토미는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겨울에 나는 굴에서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 몸시 굶주리기도 했지.”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쉰 다음 팔을 높이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날개처럼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

여행자가 큰 소리로 알려주었다.

이크토미는 맨 처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달려본 적이 없었다. 꼬챙이처럼 연약한 다리는 그렇게 갑작스럽고 힘이 많이 드는 활동에 익숙하지 않았다. 팔을 날개처럼 펴여이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두 가지의 간단한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거친 소프위드 위를 비틀비틀 내달리며 정신을 집중했다. 하지만 곧 고랑에 얼굴을 쳐박고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솟구쳤다.

이크토미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키고는 입에 들어간 흙을 뱉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입에서 분명하지 않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타당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거위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여행자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처음 보았지만 웃음을 꾹 참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졌어.”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야. 나는 이제 어떡하지?”

“언덕으로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거위의 말을 들은 이크토미가 반발하려는 찰나 그의 얼굴을 스치고 겨울의 첫 눈발이 날렸다. 이크토미의 머릿속에 눈으로 덮인 초원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서둘러 언덕 위로 올라갔다.

“달라진 건 없어. 달리면서 팔을 움직여. 그리고 믿어.”

거위가 알려주었다.

이크토미는 다시 넘어지기 직전에 언덕 아래에 간신히 도착했다. 이번에는 세게 넘어지지 않아서인지 스스로도 살짝 날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한숨을 내뱉은 다음 다시 언덕 위로 터덜터덜 걸어 올라갔다.

다음번 그리고 그다음, 다다음에는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오를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들었다.

“너는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스스로가 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는 않아.”

“네 말이 맞아. 넘어지지 않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이번에는 네가 나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봐. 상상하라고. 그 생각에만 집중해. 네 몸이 땅을 벗어나 나무 위로 날아오르는 거야.”

이크토미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해볼게.”

그는 거위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날게 되었다.

처음에는 꿈만 같았다. 발아래가 멀어지는 것 같더니 점차 높이 올라갔다! 그렇게 자각하고 나니 믿기지 않았다. 그는 팔을 더 빨리 움직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을 날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한 귀퉁이에서 일었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다. 펄럭이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옆을 날고 있는 커다란 회색 거위도 보였다. 여행자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어떡해야 하지?”

이크토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연습해야지! 계속 팔을 움직여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다음에는 곧장 활강할 거야.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해.”

이크토미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밀어 넣은 다음 동료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러자 미처 깨닫기도 전에 발아래 육지가 커졌다. 그는 자신이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제일 큰 나무보다 높이 날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날고 있어. 날고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두려워서 눈을 감았다.

이크토미는 여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몸 한쪽을 기울여 회전하는 법과 다리를 접어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 걱정되었다.

“착지하려면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 돼.”

거위가 알려주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이크토미의 첫 번째 착지는 각도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조금 급했다. 그렇지만 그는 잘 처신했다. 여행자는 잠시 쉰 다음 다시 이크토미

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거위의 생각이 옳았다. 믿음이 있으면 날 수 있었다. 이크토미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땅에서 아주 높이 올라간 그는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는 하늘에서 보이는 멋진 광경을 마음껏 즐겼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 주위로 수많은 거위들이 모여들었다. 여행자의 친구와 친척들이었다.

“이제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가야 해.”

큰 거위가 말했다.

“내 뒤를 따라와.”

이크토미는 여행자 뒤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어느새 땅에서만 보던 엄청난 화살 모양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왜소한 체구에 스치는 공기가 차가웠지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행복했다.

풍경들이 아래로 스쳐 지나갔다. 언덕과 목초지, 개울, 초원, 숲, 풀밭이 보였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정을 찾은 이크토미는 자신이 나는 것과 날지 못하는 것에는 어떤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은 믿음, 즉 신념에 있었다.(끝) 5

- 이 글은 『혼자의 힘으로 가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조셉 마셜 3세 Joseph M. Marshall III | 『할아버지와 함께 걷기』, 『바람이 너를 지나가게 하라』, 『그래도 계속 가라』 등의 눈부신 작품으로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조셉 마셜 3세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이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인생에 관한 놀라운 깨달음과 통찰,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인류가 걸어온 길 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손꼽히는 ‘라코타 인디언’의 후예인 그는 삶의 힘겨움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놓쳐버린 삶의 경이로움을 일깨운다.

역자 | **공민희** |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영국에서 1년간 수학했다. 이후 통역사로 일하다 번역이 더 적성에 맞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전업했다. 현재는 출판번 역전문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베아트리체』, 『리더들의 리더 시너지스트』 등이 있다.

추천도서 **마흔에 달는 것** Good Book

흔자의 힘으로 가라

조셉 마셜 3세 지음 | **공민희** 옮김 | 토네이도 | 값 15,000원



『그래도 계속 가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인류의 현자 조셉 마셜 3세의 또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지혜로운 입구를 찾아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현자와 함께 떠나는 여행

오래된 지혜는 늘 의심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의 내면에서 길어 올려진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이 책에 담긴 라코타 인디언들의 이야기들 또한 삶과 세계와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래된 지혜를 들려 준다.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혁명했던 그들은 말한다.

“삶이란 늘 그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가라.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힘에 이끌려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니.”

이 책 『흔자의 힘으로 가라』는 삶의 힘겨움에서 벗어나 삶의 경이로움으로 나아가는 8가지 지혜를 담고 있다. 침묵, 관용, 신념, 이타심, 인내, 지식, 평화, 지혜 등, 인생의 방향을 잊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낡은 삶의 출구와 새로운 삶의 입구를 안내하면서, 타인의 뒤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삶의 가장 전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힘에 대해 성찰한다. 이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